

임기준 '제구' 잡고 선발 잡을까



후반기 NC전 5.1이닝 사사구 줄이며 5선발 '눈도장'

“정확하게 던지려고 집중...뭔가를 알고 던지는 느낌”

KIA 임기준이 제구를 잡고, 5선발을 잡을 수 있을까?
임기준에게 선발은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자리였다. 지난해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선발후보로 분류되면서 기회를 얻었지만 제구 난조에 발목을 잡혔다.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가던 그는 시즌 막바지 극적으로 첫 선발승을 신고하기를 했다.

삼성 강타선을 5.1이닝 2피안타 2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묶으며 강속구 투수 피가로의 승부에서 승자가 됐다.

하지만 올 시즌 임기준은 아직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선발 경쟁에서 밀리면서 불펜에서 시즌을 시작했고, 승운도 부족했다. 올 시즌 17경기에 나온 임기준은 4.66의 평균자책점으로 1패 1세이브 1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아쉬운 건 역시 볼넷과 탈삼진 비율이다. 임기준은 13개의 탈삼진을 잡았지만 26개의 볼넷을 허용했다.

선발 역할은 4차례 수행했다. 5월4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선발 등판에 나선 임기준은 경기가 3-2, KIA의 승리로 끝났지만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다. 5이닝 8피안타(1피홈런) 1탈삼진 2실점(1자책), 볼넷은 하나도 내주지 않았지만 승운이 없었다.

그리고 7월3일 넥센전을 시작으로 3경기 연속 선발로 출격했다. '천적' 넥센과의 승부에서 4.1이닝 2실점(1자책)의 괜찮은 성적은 냈지만 볼넷이 문제였다. 몸에 맞는 볼 포함 7개의 사사구를 남발하면서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야 했다.

7월9일 두산전에서 2.2이닝 동안 4개

의 볼넷을 기록하는 등 부족한 성적을 냈던 임기준은 2군에서 재정비에 들어갔다. 임기준은 1군 재등록 뒤 첫 등판이었던 7월23일 NC전에서 5선발 어필에 성공했다.

후반기 고정 선발진의 후보 중 하나인 임기준은 무시무시한 화력의 NC 타자들을 5.1이닝 2실점으로 제압하면서 실력 발휘를 했다.

이날 경기가 어렵게 불펜진 난조와 타자들의 침묵으로 0-5 패로 끝났지만 임기준의 활약은 김기태 감독을 웃게 했다. 다음 경기의 선발 자리도 약속받았다.

NC와의 경기에서 3개의 사사구를 내주기는 했지만 예전의 들쭉날쭉한 제구는 아니었다. 5선발 확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제구'다. 임기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임기준은 “2군에 내려가서 밸런스 운동을 많이 했다. 세계 던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던지려는데 신경을 썼다. 하체 자세가 높았었는데 그 부분도 낮췄다”고 말했다.

제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인 임기준은 앞선 등판에서 '인생투'를 보여줬다. 계투진의 난조로 실점은 남았지만 첫 선발승을 남겼던 지난해 삼성전 등판보다 더 위력적인 피칭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기준은 “(그때보다) 뭔가를 더 알고 던지는 느낌이었다. 제구도 괜찮아서 유리한 카운트에서 승부를 하면서 넓게 보면서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고 언급했다.

임기준의 '제구' 숙제가 개인과 팀의 2016시즌 성적을 바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불신의 시대'

야구계 안팎 '승부조작 주인공 찾기' 어수선

'용의자' 언급에 "관련 없는데 거론돼 답답"

KBO, 내달 12일까지 자진신고·제보 기간

프로야구 '불신의 시대'다. 4년 만에 다시 터진 승부조작 파문으로 프로야구계가 술렁이고 있다. 문우람(상무)·이태양(NC)으로부터 시작된 승부조작 파문은 한화 시절의 '뭇된 짓'을 고백한 KIA 유창식으로 확산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야구계 안팎에서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 이니셜이 떠돌고, 선수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용의자'들도 있다. 프로야구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 언론의 관심은 '소문의 주인공 찾기'가 되고 있다.

사안이 사안인데다 소문이 사실이 드

러난 경우도 있는 만큼 소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KIA를 비롯한 각 구단들은 소문난 주인공을 찾고,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선수들 사이에서도 여러 소문이 확산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KIA의 한 선수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주 이름이 거론돼서 신경이 쓰인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소문의 주인공도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시더라.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문의 주인공들의 전면 부인에도 '박현준 사태'를 겪으면서 생긴 불신의 씨앗은 남아있다. 의심과 소문이 날은

'불신의 시대'는 오는 12일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KBO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놓고 고민을 했다. 선수들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한번이라도 가담을 했거나 제안을 받았다면 면담도 해야 한다. 어린 선수들도 있고 쉽게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 양면 작전으로 해서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측면이다. 또 선수조사 등을 통해 구단들이 살펴보고 있다면 선수들이 의식할 수 있을 것이다”며 3주의 시간에 대해 설명했다.

가슴을 졸이고 있는 팬들과 관계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8월 12일을 기다리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은퇴 김민우, 이제 인생 전반기 끝난 셈”

덕아웃 **T** 특특

▲우와= “우와”를 외치면서 등장한 이범호다. kt와의 홈경기가 열린 26일, 훈련을 위해 그라운드로 나오던 KIA 선수들 입에서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시원한 라커룸과는 전혀 다른 점동 그라운드. 김 감독은 “이제 (인생의) 전반기가 끝난 셈이다. 지금은 하프타임이니까 공부 많이 해서 후배들을 위해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은퇴를 선택한 김민우는 KIA의 전력분석 코치로 활동할 예정이다.

▲은이 좋네요= 겸손한(?) 4번 타자 나지완이다. 허구연 MBC 해설위원으로부

터 “밸런스가 좋냐?”며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자 “은이 좋은 것 같다”며 웃었다. 4번 타자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무겁다. 나지완은 “주자를 의식하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주자가 있을 때 잘 못 친다. 더 집중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제 하프타임이니까= 김기태 감독이 그라운드를 떠나는 김민우를 응원했다. 김 감독은 “이제 (인생의) 전반기가 끝난 셈이다. 지금은 하프타임이니까 공부 많이 해서 후배들을 위해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은퇴를 선택한 김민우는 KIA의 전력분석 코치로 활동할 예정이다.

최지만 3경기 연속 장타

최지만(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이 3경기 연속 장타를 터트렸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도 마이너리그에서 나란히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장타력을 뽐냈다.

최지만은 26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방문경기에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2루타)를 기록했다. 3경기 연속 장타를 신고한 최지만은 시즌 타율을 0.170에서 0.175(57타수 10안타)로 끌어올렸다. 팀은 6-2로 이기면서 3연패에서 탈출했다.

최지만은 첫 타석부터 큼직한 타구를 날렸다. 3-0으로 앞선 1회초 2사 1루에서 첫 타석을 맞은 최지만은 캔자스시티 선발인 케네디의 3구째 너를 커브를 잡아당겨 우월 2루타로 연결했다.

최지만의 장타로 2사 2루 기회를 이어간 에인절스는 카를로스 페레스의 내야 안타로 1점을 더했다.

오른쪽 허벅지를 다쳐 15일짜리 부상자 명단(DL)에 오른 김현수는 마이너리그 재활경기에서 홈런포를 터뜨리며 복귀 준비를 마쳤다.

/연합뉴스

리우 골프 전초전

브리티시여자오픈 내일 개막

리우네자네이루 올림픽 여자골프 메달 판도를 미리 점치는 무대인 브리티시여자오픈 골프대회가 28일부터 영국 런던 근교 워번 골프 앤드컨트리클럽 마퀴즈 코스(파72·6744야드)에서 나흘 동안 열린다.

브리티시여자오픈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네번째 메이저대회다. 메이저대회라는 무게감 못지않게 이번 대회는 리우 올림픽에 앞서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LPGA투어 대회라는 점에서 남다른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다룰 정상급 선수들이 바로 리우 올림픽 메달 후보들이다.

리우 올림픽에 출전 선수 4명 한도를 짊어진 한국 군단은 이번 대회 우승컵을 안고 리우에 입성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최근 4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이어진 우승 갈증을 씻겠다는 다짐이다. 작년에는 5대 메이저대회에서 3승을 쓸어담은 한국 자매 선수들은 올해는 아직 메이저대회 우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디펜딩 챔피언 박인비(28·KB금융)가 빠진 자리는 김세영(23·미래에셋)이 메울 태세다. 장타력과 함께 두드러진 배짱이 돋보이는 김세영은 생애 첫 메이저대회 왕관을 노린다.

이 대회에 나서는 한국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5위)이 가장 높은 김세영은 UL 인타내셔널 크라운에서 특유의 공격 골프를 앞세워 한국의 준우승을 견인했다.

/연합뉴스



시원한 서핑 물보라

미국캘리포니아주 헨팅턴 비치에서 열리고 있는 US 오픈 서핑대회에 참가한 프랑스의 조안나 드페이(Johanne Defay)가 1라운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 대회는 서핑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대회로 올해로 57주년을 맞이했다.

/연합뉴스